보도시점 2026. 11. 25.(수)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25.(수)

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, 기존 환자의 건강관리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.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MBN의 11월 24일 **「노인들 고혈압·당뇨 폰 측정 쉽지 않은데…새 사업 띄우려 19년 된 지원금 '0원'」**, 월요신문 11월 25일 **「고혈압·당뇨 환자들, 국회 앞… "치료비 예산 복원하라"」**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(11.25.).

□ 설명 내용

○ 정부는 거주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**보다 많은 국민이 만성질환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**하고 있습니다.

- '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'(이하 '고당사업')은 2012년부터 **19개 지역**(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약 8%)**에 한정**되어 운영되어 왔으며, 나머지 **약 92% 지역**은 동 사업 **대상에서 배제**되어 **지역 간 건강형평성 제고가 필요**한 상황입니다(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93%가 혜택에서 제외).

- 복지부의 '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'(이하 '일만사업')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체계적·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, 2019년 시범사업 착수,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되어, 240개 지역 5,29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

- 고당사업과 일만사업은 **관리 대상**(고혈압, 당뇨병 환자) 및 **방식**(환자를 등록하여 지속 치료·관리)**이 유사**하나 **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한계로 각 사업별 환자를 별도 관리**해 왔습니다.

-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으로, **젊은층의 고혈압, 당뇨병 환자나 소아 청소년의 당뇨병 등은 관리 사각지대**에 있었습니다.

- 이에 일만사업과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여 **환자를 통합관리**하고자 합니다. **두 사업의 강점*을 연계**하여,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**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** 관리 대상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* ❶ **일만사업** : 동네의원 중심의 기본교육, 환자관리 등 지속적·포괄적 관리,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고당센터로 환자 교육 의뢰

❷ **고당사업** : 다학제 전담 인력(간호, 영양, 운동치료사 등) 기반 환자맞춤형 추가·심화 교육·상담 제공, 의원에서 의뢰된 환자가 고당사업 교육 이수 시,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적립 가능

○ **기존 환자의 치료와 건강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**하겠습니다.

- 원활한 제도 개편을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개편 사항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 실시함과 동시에, 노인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- 아울러,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(향후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)에서 앱 사용 방법, 혈압·혈당 측정값 입력, 걷기 실천 기록의 자동 연동 방법 등을 안내·지원할 예정입니다.

○ 앞으로도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**유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**하여 일만사업 참여 의원 추가 모집, 기존 환자의 관리 공백 최소화 등 **보다 많은 국민이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**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	책임자	과 장	이연경 (043-719-7430)
		담당자	연구관	서승희 (043-719-7432)
			연구사	윤하정 (043-719-7444)
담당 부서 <협조>	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은정 (044-202-2810)
		담당자	서기관	김한얼 (044-202-2802)
			주무관	신동일 (044-202-280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